

‘정확한 평가 · 처방’이 모두에 이익



콩나물 · 일반농산물 재배 다르지 않아, 병 방제 위한 것
‘오해 · 편견에 의한 처방’ 모두에 불행, 정확한 이해에 기초해야

자료 : 농약중독연구소

지난 2003년 3월에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옥소리닉에시드(oxolinic acid)와 티아벤다졸(thiabendazol)을 콩나물 콩의 종자소독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물론 뒤이어 농약사용 허용에 관한 발표는 없었던 것으로 되었지만 필자는 당시 농과원의 결정은 매우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소비자들은 농약에 대한 관심과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더 이상 농약에 대한 오해가 지속되어서는 콩나물 생산업자는 물론이고 소비자, 법을 집행하는 정부기관 모두에게 이롭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정확한 평가만이 정확한 처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콩나물 재배에 허용하고자 했던 두 가지 농약 즉, 옥소리닉에시드는 퀴노리논계로써 세균병에 잘 듣는 살균제이고 티아벤다졸 또한

살균제이다. 콩나물 재배에는 살충제를 사용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

콩나물 재배와 일반 농산물 재배가 다를 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일반 농산물에는 농약사용을 허용하면서 콩나물 재배에는 농약사용을 금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

사실 현재도 콩나물 재배에 ‘인돌’이라는 농약을 허용하고 있다. 인돌에는 IAA와 6-benzylaminopurine (BA)라는 유효성분이 들어 있다. 이 두 성분은 모두 생장을 촉진하는 생장촉진제이며 두 약제 모두다 급성독성과 만성독성이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 성분이다.

콩나물 재배 방법이 밀식재배이고 재배환경이 온도도 높고 또한 다습하기 때문에 콩나물의 대량재배에는 필시 병이 들게 마련이다. 특히 콩의 껍질과 콩나물 머리부분이 잘 썩는다. 가정에서 콩나물을 재배할 때에도 병이 잘 든다. 하물며 대량재배에는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콩나물 재배중 위에서 언급한 생장조

절제만 사용하고 있는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사람도 병이 들면 약을 사용하여 구제받는다. 그러나 사람이 복용하는 약도 마찬가지로 독성이 있는 독물이다. 콩나물 생산업자의 입장에서는 병든 농산물(콩나물)에 농약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살균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농약, 올바른 평가·처방이 모두에 이의

콩나물의 병은 대개 종자에서 유래한다. 옛날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콩나물 콩을 밥상위에 올려놓고 일일이 손으로 병들었거나 손상된 콩은 버리고 건전한 종자만을 골라서 콩나물로 키웠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콩나물 콩 종자를 소독하면 재배 중에 발생하는 병의 대부분을 막을 수 있다. 농과원에서 콩의 종자 소독에 농약사용을 고려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종자소독에 상대적으로 독성이 문제되지 않는 농약만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콩나물재배시의 무분별한 농약사용을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시민의 건강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농약은 분해되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화합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농약은 대개 분해가 잘 되는 농약으로 분류된다. 옥쏘리닉에시드와 티아벤다졸은 비교적 환경 중에서 또는 생체 내에서 분해가 잘 되는 농약이다. 종자소독은 콩나물재배의 첫 단계이다. 따라서 재배 중에 농약을 살포하는 것보다 종자소독에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최종 상품인 콩나물에 덜

잔류하게 하는 것이다.

또 콩나물은 열을 가하여 조리한다. 신선한 것으로 섭취하는 야채나 과일에도 콩 종자소독에 허용을 시도했던 농약을 살포하고 있다. 콩나물을 생 것으로 먹는 사람은 별로 없다. 농약의 분해반응은 온도가 높을수록 더 빨리 일어난다. 따라서 콩나물에 농약의 법적 잔류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엄격히 관리하면 일반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독이면서도 이로운 것들이다. 사람에게 있어 만성독성이 문제되는 것은 농약보다는 우리가 일상으로 대하는 음식과 기호품이다. 술, 담배, 그리고 커피 등은 말 할 것 없고 우리가 일상으로 의심 없이 먹는 모든 음식에는 독성이 문제되는 천연의 성분과 미생물 등에서 유래된 화합물이 들어있다.

농약이 문제 안 된다고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농약은 누가 뭐라고 해도 독성이 강한 화합물이다. 그러므로 정확히 평가하여 정확히 처방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농약사용을 줄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확한 이해 없이 오해나 편견에 근거하여 처방하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농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Y

본 내용은 순천향의대 천안병원 농약중독연구소(소장 홍세용) 홈페이지 '자료와 정보' 코너에 게재된 황을철님의 글로써 농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에 도움을 주고자 농약중독연구소의 허락을 받아 게재한 것입니다.